

불자 세상보기



방영준
신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방학과 휴가의 기간을 성형의 계절이라 부른다. 한국은 이제 '성형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성형을 받으려는 관광 상품도 인기가 높다고 한다.

나는 성형을 비난하거나 폄하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외모지상주의나 내면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야 하느니 하는 '도덕군자' 인 척하는 규범적 비난에 선포 동참하기는 망설여진다. 다만 성형수술의 부작용에 대한 딱한 사연에 가슴이 저릴 뿐이다. 그 딱한 사연은 왜 그리 많은지.

성형은 인간 문명의 전개과정 속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간은 자연을 관리하는 기술을 터득하면서 문명의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고, 몸의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수명을 늘려

왔다. 이제는 얼굴을 관리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아니, 인간의 얼굴에 대한 관리의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헤어리기도 어려운 먼 옛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얼굴에 부착되는 각종 장신구, 다양한 화장품과 화장은 이미 보편화된 현상이었다. 그런데 얼굴을 장식하고 화장하는 것을 넘어 지금은 얼굴을 뜯어 고치는 기술까지 개발한 시대로 온 것이다. 그러나 어찌 성형을 폄하하고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문명의 수레바퀴에 성형의 자국은 너무나 뚜렷하다.

아름다움은 인간 뇌를 편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심리학계의 실험에 따르면 추한 대상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하는데 아름다운 대상을 선택하는 데는 매우 다양한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강남의 지하철역이나 지하도에서 성형외과 병원의 선전을 많이 보게 된다. 한결같이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사진을

비교해 놓고 있는데 이는 영화에서 보듯 쫓기는 범죄자가 가면으로 얼굴을 개조한 듯 완전히 판판이다. 그리고 고쳐진 얼굴은 엇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아름다움은 다양한 속에 있는데 성형수술에 그 못된 전체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이 성형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성형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언뜻 붓다의

아름다움은 다양성에 있어
붓다의 '중도의 지혜'가 해법
'화무심일홍'... 마음 가꿔야

중도의 지혜'가 떠오른다. 가야금의 줄은 너무 조이면 끊어지고 늘어지면 소리가 죽는다. 어떻게 아름다운 가야금 소리를 낼 것인가? 몇 가지 성형의 중도 길을 찾아본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형의 동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다. 경쟁만사회에서의 생존수단에서부터 과시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것이다.

이에는 자기 삶의 방향과 가치관 정립에 대한 깊은 고뇌가 반드시 요구된다. 또한 아름다운 얼굴보다는 추함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다. 아름다워 지려는 열망으로 얼굴 성형을 했는데 오히려 이상해졌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와 정체성을 지우는 성형수술은 받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는 과거의 낡은 엘범 속에서 삶의 아련함을 느끼고 삶의 지혜를 배운다. 낡은 엘범 속의 사진을 타자로 느끼고, 수치로 느낀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아무래도 명심할 것은 성형수술의 결과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몸도 얼굴도 늙어 가면서 성형된 모습 또한 늙어 갈 것이다. 어쩌랴. 그 늙은 모습이 참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믿을 만한 것은 마음뿐 아닌가. 마음 성형은 오래 가고 이쁨이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마음 성형의 명되는 어디에 있는가?

社說

문광부 학술도서 선정 문제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학술도서 선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교 전공자가 전문심사위원 선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불교계 출판사 모임인 불교출판문화협회는 7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불출협은 성명서를 통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종교 분야에 총 8종이 선정됐으나 불교 관련 도서는 한 종도 선정되지 않았다"며 "이런 선정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학술도서 출판사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용됐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불출협은 도서 선정 단계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불교 전공자가 전문심사위원 △불교학 분야 심사위원 명단과 전공 분야 공개 △일련에 과정 등을 8월 5일까지 밝힐 것을 촉구했다.

사실 우수학술도서에 1, 2권이 더 선정된다고 해서 불교계 출판사의 사정이 나아지

는 것은 없다. 다만 좋은 책을 발간했다는 출판사의 명예가 올라가는 것이다. 불출협이 협회 차원에서 반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교 전문가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불교 사적을 심사했기 때문이다.

실제 불교계 출판 관계자들은 "불교계 전문가가 임화하는 등 정확한 절차가 이뤄졌다면 우리도 이 사안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을 반성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자기 편의대로 진행한 데 대한 불만인 것이다. 실제 일본계 불교 종단인 한국장가학회(SGI)의 학술서가 버젓이 우수학술도서로 올라오는 등 이번 선정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우수학술도서 선정에 대한 비판 여론은 출판계에 파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이다.

이제라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선정 단계는 선정 배경과 과정을 낱말이 공개하고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 불교 출판계 역시 자체 모니터링과 불교 출판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에 힘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 영문표기 혼란 종식 환영

통일 표기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문화재 영문 표기의 기준이 마련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영문 표기에 대한 새로운 기준 규칙을 제정하고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은 문화재청이 2010년부터 세미나, 공청회 등 15회에 걸쳐 관계 전문가, 주한 외국인, 비영리단체 유학생, 일반인 등 100여명과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박물관, 한국관광공사, 서울특별시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이번 영문 표기 기본원칙은 △국문 고유어의 문화재명칭 최대한 보존 △보통명사는 단어의 뜻으로 옮기는 방식의 의미를 적용△문화재 명칭은 생략 없이 그 명칭 전체 표기 △기준이 대립할 경우에는 활용성과 범용성이 큰 쪽을 선택 등 4가지다.

특히 불교문화재와 관련해선 부처님과 보살의 영문명칭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산스크리트어가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한다. 불교 관련 전적은 흔히 사용하는 산스크리트어가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하고, 보편성이 떨어지는 경우 영문제목을 사용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안내판, 인쇄 홍보물 등을 점차적으로 이번 기준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으며, 관계 기관에도 표기 기준에 맞추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사실 그간 문화재 영문 표기는 관련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라 통일성이 부족하고 범용성도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 영문 표기 기준 마련으로 학술적·관광적·국제적으로 통일성을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앞으로 문화재청의 영문 표기가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발언대

한겨레 신문 달라이 라마 폄해 논란

정문태 국제보존전문기자가 달라이 라마를 비판하는 칼럼을 다시 게재했다. 글의 논지는 달라이 라마가 미국과 서구 열강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데 있다. 하지만 주한 티베트 단체와 불자들은 댓글과 SNS를 통해 정 기자의 칼럼을 비판했다. <편집자주>

티베트의 투쟁을 진정 존경한 것인가

'반미'라는 명분이 당신의 시야를 흐려 놓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미국을 증오하는 당신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거기에 빠져서 냉철한 눈을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D:ssakssuk>

한국이 일제에서 독립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필자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티베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 티베트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티베트인들의 투쟁을 존경해 왔다"는 필자의 글이 진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티베트인들의 현실을 한겨레 신문에 더 많이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에 머물고 있는 티베트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것으로 줄입니다. <D:Tenzing Lama>

티베트와 CIA이야기는 1959년 이후 신문 기사에서 양면으로 잘 써먹은 단골 주제이기도 합니다. 말미에 '달라이 라마와 망명 정부를 비판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한 까닭이라고 하셨는데요.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시려면 제대로 된 팩트를 갖고 해야 합니다.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을 왜곡하며 한 민족의 지도자를 싸구려 같은 존재로 만들면서 하는 비판은 필자나 독자들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D:tibetmirror>

한겨레신문, 정문태 기자의 글이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잘 알면 모르겠지만 왜곡된 기사를 개념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글이 보도됨이 창피합니다. <D:lara0108>

사실이 아닌 순전히 자신이 가공한 얘기를 사실인양 "중요지도자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도 지금까지 유일하게 기업광고에 얼굴을 내민 사건이었다"라고 쓴 정문태 기자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이제부터 영원히 접합니다. 더불어 한겨레 창간 당시 약속하나마 참여했던 저로서는 늘 이런

식으로 갈등만을 조장하는 한겨레에 이제는 기대를 접어야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요즘입니다. <D:i앤드류>

지극히도 서양의 관점에서 가중스러운 합리주의를 앞세워 기고로 하셨습니다. 당신같은 사람이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동양의 심오한 철학에 대해서 이해나 할 수 있을런지. 그런 사람이 티베트에 대해서 합부로 논하는건 자격 없는 사람이 수술을 감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괜한 펜으로 한 나라의 역사와 한 사람의 인생을 난도질 하지 않길 바랍니다. <D:김충중>

"시민의 눈으로 티베트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감정은 거리가 먼 글이 됐습니다. 이유는 설명과 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소의 관점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반미의 눈으로 티베트를 보니 시민의 관점과는 거리가 멀고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의도를 감추고 목적에 맞추려니 공감도 얻기 어렵

고 오류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D:kisoods>

살다보면 때론 실수도 하고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잘못도 저지르게 된다. 나도 그렇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고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 한겨레 신문은 일개 기자에게 모든 문제를 미루지 말고 이제라도 정식으로 사과하라. 별볼일 없는 한량이지만 한겨레 신문 불매 운동 벌일 생각도 하고 있다. <D:신창우>

말미에 던져버리듯 올리는 것은 순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일 뿐입니다. 자신이 인정한 오류에 대해 분명하고 책임있는 사과부터 확실히 한 후에 인류와 세계의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조용하게만 있다면 당신들이 비판하는 쪽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D:Boram Park>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서 얻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약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박 경 수	010-9819-83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여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남인의 첫 책자 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